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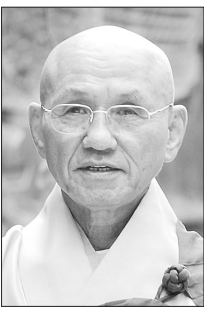
영화사, 아름다운동행에 3000만원 전달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사진)이 회주로 있는 서울 영화사(주지 평중스님)가 자비기금 3000만 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기부했다. 서울 영화사 총무 화평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이 전개하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비기금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회주 스님과 영화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영화사 총무 화평스님은 “회주 스님께서 지구촌공생회의 미주지역 지부를 돌아보기 위해 출국하신 상태”라면서 “스님께서는 귀국하시면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케냐 등 아프리카 지역에 학교건립과 우물 파주기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불련 총동 문화에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등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 혜경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저소득·실직가정·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의 보시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 차원에서 △희망의 등 달기 △저소득 가정을 위한 1배 100원 모금 △한 끼 나누기 운동 △자비연꽃 배지 달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더욱 많은 스님과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금전달식에서는 지구촌공생회가 미얀마 지역 등 동남아 청소년들을 위해 건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현지 학교를 주제로 대화가 진행됐다.

기금전달식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과 사서실장 경우스님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융화합으로 팔공산시대 열 것”

성문스님, 11일 ‘동화사 주지’ 임명장 받아

“먼저 팔공산문의 모든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로 중진 큰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스님들을 잘 받들겠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원융화합으로 팔공산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임명장을 받은 성문스님(천안 보명사 회주)은 본사 주지로 첫 발을 내딛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동화사 주지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지난 4월22일 열린 산중총회는 두 후보자의 득표가 동수를 이뤄 승탑까지 따져야 하는 등 유례없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결국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재검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최종 확정하고, 기호2번으로 출마한 성문스님이 이를 승복하면서 선거논란이 일단락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동화사 주지 임명장을 받게 된 성문스님의 심정은 편지만은 않다. 이날 임명장을 받

은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원융화합으로 대중을 이끌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님은 “이번 선거는 역대 교구본사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억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본사

선거 지지여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 중용’

주지 선거에 대한 회의도 들었고, 많은 과제를 남겼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대중의 뜻에 따라 소임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갈등의 골을 메우는데 중점을 두고 원융화합의 중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문스님은 (가칭)팔공산중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여러 문종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선거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 중용할 방침이다. 스님은 “여러 문종의 의견을 청취해

중무행정에 반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산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구본사 주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스님은 “대구·경북의 모든 불자들과 함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더불어 동화사가 간직하고 있는 한국선불교를 세계화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 시내에 교구사무처를 따로 설치해 본·말사 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침체된 지역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구 과제사에서 고승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문스님은 안양 염불암·서울 봉은사 주지, 제10·11·12대 중앙중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성문스님의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허정철 기자

포교사단, 어린이 환우에 선물

동국대일산병원서...컵등 단주 만들기 체험도

포교사단 서울·경기지역단 계층분과(위원장 전문기)는 지난 4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어린이 환우를 위한 선물전달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중제스님, 전문기 위원장을 비롯해 어린이티م 포교사 22명이 참석, 병실을 돌며 인형과 과

자, 음료수 등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 페이스페인팅, 단주 만들기, 컵등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과 13일에도 서울 삼성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각각 선물전달 행사를 펼쳤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한국비구니연구소(소장 본각스님)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한국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활동〉을 발간했다. 비구니승가가 탄생한 초기불교부터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개 2부 ‘한국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불교계’ 3부 ‘현대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교화’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스님,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일진스님, 동국대 교수 윤월스님 등

한국 비구니승가 발자취 총망라

연구소, 10주년 기념 책자 발간

활동을 연구한 논문집이다. 한국 비구니승가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향후 과제를 조망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1부 ‘비구니승가의 성립과 전

12명의 불교학자들이 집필했다. 우리나라 비구니가람 주소록도 실었다. 본각스님은 간행사에서

“출가자로서 참다운 길을 걸어가 는 비구니들의 아름다운 수행현장과 문화전통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1@ibulgyo.com

젓먹이 엄마도 연등축제 즐기고 싶어



현장에서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인천에 사는 김 모 씨는 올해 연등축제 행사에 가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사실에는 자주 가지 못하지만 연등축제만은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몇 달 전 출산한 김 씨는 아기와 함께 축제의 향연을 즐기고 싶다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모유 수유를 하는 김 씨는 시시때때로 젓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걱정된 것이다. 게다가 혼잡한 인파나 소음도 아기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거의 마음을 접은 상태다.

연등축제는 모든 이가 하나가 돼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면서 어울리는 자리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젓먹이 엄마들도 대표적인

사례다. 일찍부터 사찰에 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방이나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아이를 돌볼 곳이 없어 곤란한 젊은 세대를 위한 시설이 있으면 포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도 많은 사찰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과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다.

1년에 한 번 있는 연등축제만이라도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조계사나 인근 종단 건물의 작은 공간을 수유실로 꾸며 하루 동안만 개방하는 방법은 어떨까. 쉽게 지나치고 외면하기 쉬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가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승려 분한신고 연장 실시 공고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거 본종 모든 재적승려를 대상으로 제7차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전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른 유언장 제출은 본 분한신고 기간과 분리하여 시행합니다. 위 종령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시는 스님들은 급변 분한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언장 미제출 사유로 분한의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종단은 위 종령에 의거하여 간소화된 유언장 제출 기간을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1. 신고 및 교구 심사 기간 : 불기2544(2010)년 3월 1일 ~ 4월 30일

신고 및 교구 심사 기간 연장 : ~ 5월 20일까지

2.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재적승(예비승 포함)

3. 신고장소 : 재적교구본사. 단, 재적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 사무처에 신고

4. 신고서류

-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5. 신고방법

- 1) 신고인은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고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합니다.
- 2)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 사무처로 신고하며 직할교구소속 승려 이외에는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합니다.
- 3)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은 신고인의 신고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한 후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토록 합니다.
- 4) 재발급된 승려증은 신고한 재적교구본사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6. 주의사항

- 1) 신고기간 내에 신고 치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한신고 시행규정 제17조에 의거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 2) 승적 말소란 종단 재적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 3) 신고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7. 문 의 처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또는 각 교구본사 총무소

☎ 02) 2011-1703~17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 2554(2010)년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